중국과 관련한 일들에 대하여

202114110 조예나

최근 중국과 관련한 이슈가 뜨겁다. 이는 유명 인기 드라마에 대한 ppl, 문화 공정, 한중복합문화타운 설립 등이다.

약 두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다. 67만명이나 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정부의 답변도 받았다. 정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건설’ 한다는 텍스트 자체만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그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사실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닌, 예전부터 쭉 살아온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강원도에 지어지게 될 한중복합문화타운은 리조트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건설하는 데에 정부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민간 사업의 개념이다. 관광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이 사업이 욕 먹으면 경기도 가평의 쁘티프랑스 혹은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 등도 없애달라고 청원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예 이름부터 대놓고 그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의 시초는 한창 중국발 호황이 시작되던 그 시절(2009년) 이다. 그 때 상황은 전국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시절이었다. 이미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점점 망해가니 사업을 시작한 업체 측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사업은 코오롱 글로벌의 지분이 75퍼이고 나머지의 일부가 중국 자본이다. 제주도에 신화월드가 있는데 그곳은 중국 자본이 만들었다. 이 곳이 비난받는다면 신화월드 또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만으로는 개인적으로 욕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계약 시 문화 공정 등의 사항을 적절히 규율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본다.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이다.

또한 유명 드라마에서의 중국 제품 ppl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드라마 ‘빈센조’에서 중국 브랜드의 비빔밥이 방송을 타게 되었다. 방송 당시 중국의 한국 문화 공정이 심화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해당 장면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제작진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장면을 없애며 사과했다. 단순히 상업성을 두고 ‘중국의 협찬이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팬의 규모도 크고, 드라마 퀄리티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시하던 중이므로 이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문화공정의 사례로는 실제로 제작하다 폐지된 드라마가 있다. 바로 ‘조선구마사’ 이다. 조선의 식탁에 중국식 음식이 올랐고, 극중 의상이 중국 것이었다. 또한 왕으로 군림할 세종대왕이 사신을 맞이하는 방식도 모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중국의 행동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시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리내어 행동함으로써 적절히 사후대처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생각한다.